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20515**

October 18, 2010

President Barack Obam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President Lee, Myung-bak  
Chongwadae (Attn: Office of the President)  
1 Chongwadae-r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As you begin negotiations on severa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we ask that you take this opportunity to make meaningful changes to the underlying text. We believe that trade agreements should foster balanced and fair economic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y should be tools for alleviating poverty, advocating economic justice, promoting healthy communities, advanc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We urge you to modify the agreement to reflect these ideals and craft the first, true 21<sup>st</sup> Century Free Trade Agreement.

An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should not jeopardize our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s. We ask that the language in this agreement state more explicitly our countries' intention to maintain our high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ing so will minimize the risk of foreign corporations challenging these policies as burdensome on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it will underscore the notion that FTAs can help to advance public health, food safety, workers' and far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his regard, two particularly troubling provisions are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e negative list system of services.

In the aftermath of this worldwide recession, we must preserve our governments' right to prevent and respond to financial crises. Both of our countries took extraordinary measures to react to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without which our financial systems could have collapsed and the recession made worse. We urge you to clarify explicitly that this agreement protects our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r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event of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without a free trade agreement, Korea and the U.S. have exchanged on average nearly \$7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each year of the last decade. Our FTA should build on this existing economic relationship and strive to make it stronger and more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We strongly support an FTA that harnesses these benefits without exposing our health,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o potential corporate challenges. Making substantive changes to the KORUS text to safeguard against these challenges will preserve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FTA –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growth in our two countries.

An FTA that prioritizes corporate interests over those of our constituents is not an agreement but a compromise of our countries' ideals, and it is one we foresee working to defeat. We urge you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improve the FTA and make KORUS the new global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Sincerely,



Michael H. Michaud  
Member of Congress



Phil Hare  
Member of Congress



Jesse L. Jackson, Jr.  
Member of Congress



Henry C. "Hank" Johnson, Jr.  
Member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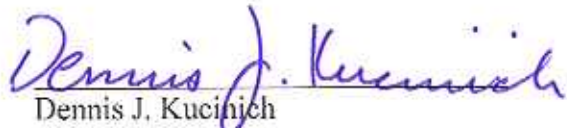
Marcy Kaptur  
Member of Congress



Dale E. Kildee  
Member of Congress



Mary Jo Kilroy  
Member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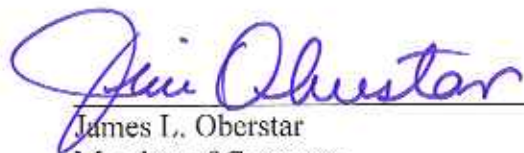
Dennis J. Kucinich  
Member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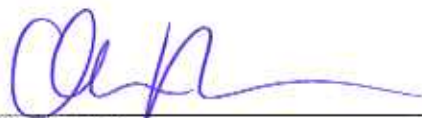
Daniel Lipinski  
Member of Congress



Alan B. Mollohan  
Member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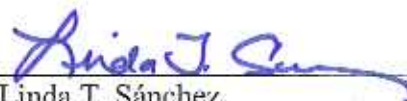
James L. Oberstar  
Member of Congress



Chellie Pingree  
Member of Congress



Tim Ryan  
Member of Congress



Linda T. Sánchez  
Member of Congress



Janice D. Schakowsky  
Member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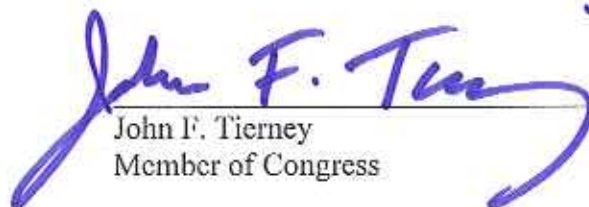
Louise McIntosh Slaughter  
Member of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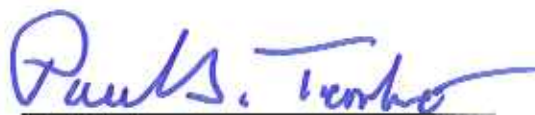
Bart Stupak  
Member of Congress



Betty Sutton  
Member of Congress



John F. Tierney  
Member of Congress



Paul Tonko  
Member of Congress



Maxine Waters  
Member of Congress



#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150-701  
1 Uisadang-ro, Yeongdeungpo-gu, Seoul, 150-701 Korea

October 18, 2010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대한 의미있는 수정을 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이 협정 당사국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무역협정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에게 이러한 이념이 반영되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21 세기형 자유무역협정을 만드는 최초의 기회를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 안됩니다. 우리는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을 위협할 위협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이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 보호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예외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양국의 금융 제도는 붕괴했을지도 모르며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와 금융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을 명확히 할 것을 양국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해 왔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더 강고히 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상호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공중보건, 노동, 환경 기준을 기업들의 공격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우리를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개정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공격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와 성장 촉진을 이룩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이상에 따른 합의가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상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를 개선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새로운 범세계적 기준으로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한미FTA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서명부

의원명	서명	날인
이낙평	이낙연	
이정희	이정희	
김성순	김성순	
신건	신건	
유성엽	유성엽	
홍희택	홍희택	
최규서	최규서	
김춘진	김춘진	
김영진	김영진	
백주현	백주현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미FTA전면제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강창익	강창익	
문학진	문학진	
조승수	조승수	
최영애	최영애	
최철규	최철규	
강기갑	강기갑	
곽정숙	곽정숙	
김재균	김재균	
김진애	김진애	
박은주	박은주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미FTA전면제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안 민 석	안 민 석	
조 배 숙	조 배 숙	
김 영 진	김 영 진	
이 윤 석	이 윤 석	
유 선 호	유 선 호	
이 종 걸	이 종 걸	
장 세 환	장 세 환	
권 병 석	권 병 석	
최 문 순	최 문 순	
유 원 일	유 원 일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미FTA 전면제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 참여 서명부

의원명	서명	날인
조동영	조동영	
이미경	이미경	
천재범	천재범	
김호석	김호석	
가브리엘	가브리엘	

\* 날인은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이낙연	Lee, Nak-Yon
2	이정희	Lee, Jung-Hee
3	김성순	Kim, Sung-Soon
4	신건	Shin, Kuhn
5	유성엽	You, Sung-Yop
6	홍희덕	Hong, Hee-Deok
7	최규성	Choi, Kyu-Sung
8	김춘진	Kim, Choon-Jin
9	김영진	Kim, Young-Jin
10	박주선	Park, Joo-Sun
11	강창일	Kang, Chang-il
12	문학진	Moon, Hak-Jin
13	조승수	Cho, Seung-Soo
14	주승용	Seung, Yong-Joo
15	최철국	Choi, Chul-Kook
16	강기갑	Kang, Ki-Kab
17	곽정숙	Kwak, Jung-Sook
18	김재균	Kim, Jae-Kyun
19	김진애	Kim, Jin-Ai
20	박은수	Park, Eun-Soo
21	안민석	An, Min-Suk
22	조배숙	Cho, Bae-Sook
23	이윤석	Lee, Yoon-Seok
24	유선호	Lew Seon-Ho
25	이종걸	Lee, Jong-Kul
26	장세환	Jang, Se-IIwan
27	권영길	Kwon, Young-Ghil
28	최문순	Choi, Moon-Soon
29	유원일	You, Won-II
30	정동영	Chung, Dong-Young

31	김춘진	Kim, Choon-Jin
32	이미경	Lee, Mi-Kyung
33	천정배	Chun, Jung-Bae
34	김효석	Kim, Hyo-Seuk
35	김재윤	KIM, JAE- YUN